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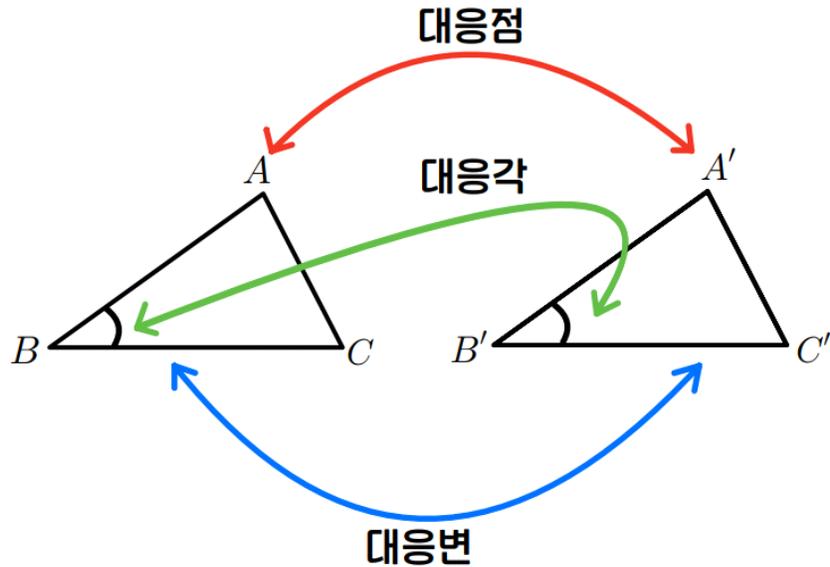


합동이란 완벽하게 동일한 도형을 의미합니다.

만약 합동인 도형 두 개가 존재한다면, 도형을 움직여서 완벽하게 겹칠 수 있습니다.

합동인 도형은 완벽하게 같은 도형이니까, 모든 변의 길이도 같고, 각의 크기도 같겠죠.  
넓이도 둘레도 모두 같습니다.

합동인 도형에서 같은 점을 대응점, 같은 변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.



합동은  $\equiv$ 이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.

두 삼각형  $ABC$ 와  $DEF$ 가 합동이라면  $\triangle ABC \equiv \triangle DEF$  라고 쓰면 돼요.

이때 대응점 순서대로 기호를 써야 하는데요,

같은 점을 나타내도록 순서를 맞추어 쓰면 됩니다.

#### ☾ APOLO TIPS

합동기호  $\equiv$ 와 등호  $=$ , 헛갈리기 쉽죠?

$\triangle ABC = \triangle DEF$  처럼 등호를 쓰면, ' $\triangle ABC$ 와  $\triangle DEF$ 의 넓이만 같다'는 의미가 됩니다.

합동이 아니니까 모양이 같은지는 다른지는 몰라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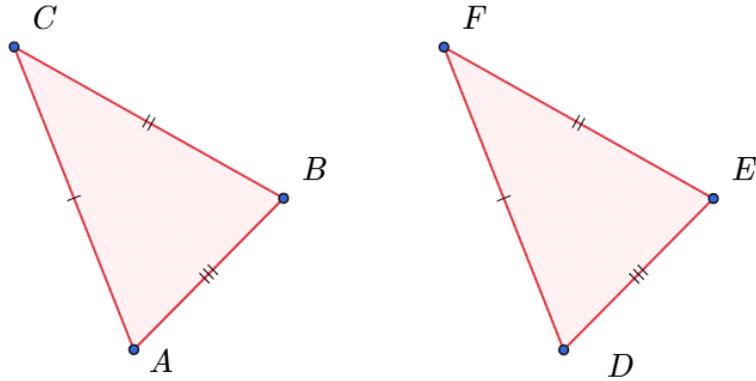
헛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!



두 삼각형이 합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?

삼각형이 합동이라면,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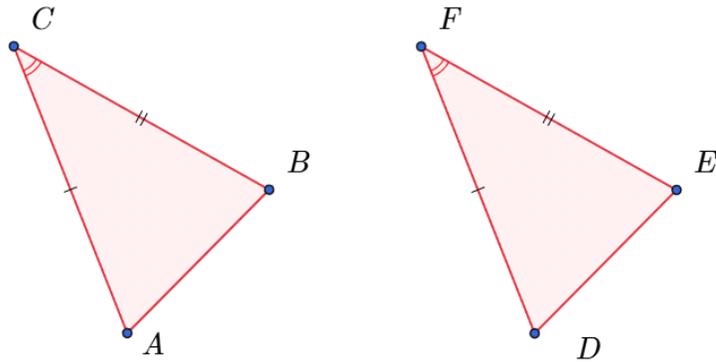
이번 테마에서는 그중 3가지를 배워볼게요. 이 3가지는 아무 삼각형에나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.



첫 번째, SSS 합동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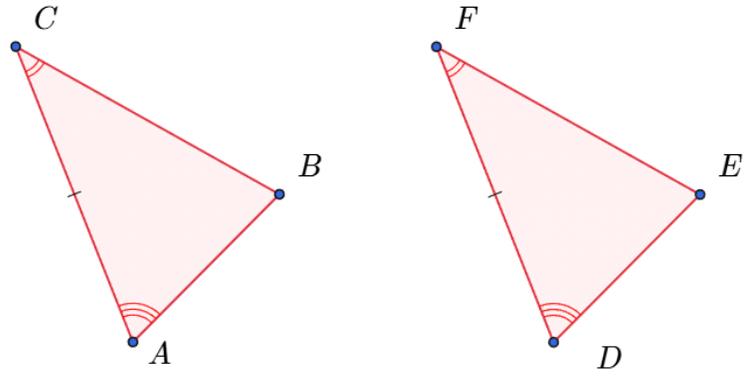
두  $\triangle ABC$  와  $\triangle DEF$  를 볼게요.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?

이렇듯,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 두 삼각형은 SSS 합동입니다.



다음으로는 SAS 합동입니다.

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, 두 변 사이 끼인 각 ( $\angle C$  와  $\angle F$ )의 크기가 같습니다.



마지막 ASA 합동입니다.  
두 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, 한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

### 개념요약

- 1) SSS 합동 :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, 합동이다.
- 2) SAS 합동 :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 같다면, 합동이다.
- 3) ASA 합동 :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이 같다면, 합동이다.

### ☾ APOLO TIPS

S란 선분(Side)이라는 뜻이고, A는 각도(Angle)이라는 뜻입니다.  
SAS와 ASA가 헷갈리나요? 이름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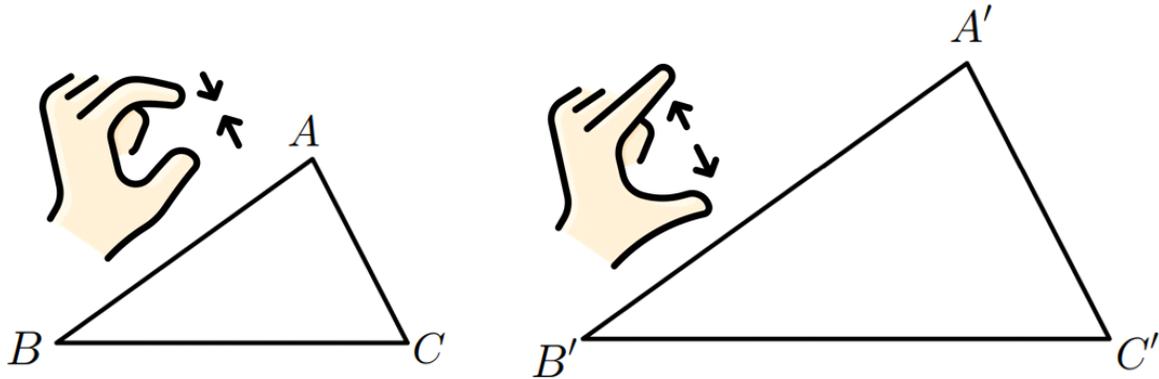
S (선분) → A (각도) → S (선분) : 두 변과 끼인 각

A (각도) → S (선분) → A (각도) : 한 변의 길이와 두 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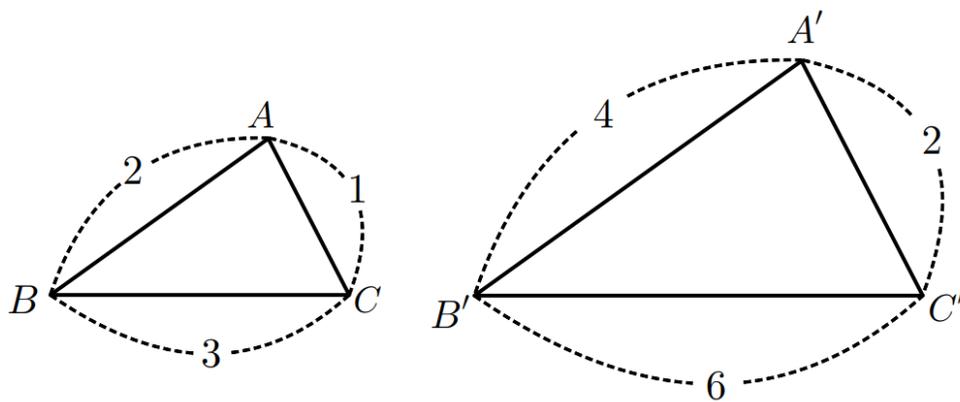
합동이란 두 도형의 모양이 완벽하게 같은 거였죠? 이와 비슷한 개념이 닮음이에요.  
스마트폰에서 사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랑 같다고 보면 돼요.

어떤 도형을 줌인, 줌아웃시켜서 다른 도형과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,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불러요.



좀 더 있어보이게, 수학적인 정의를 살펴볼게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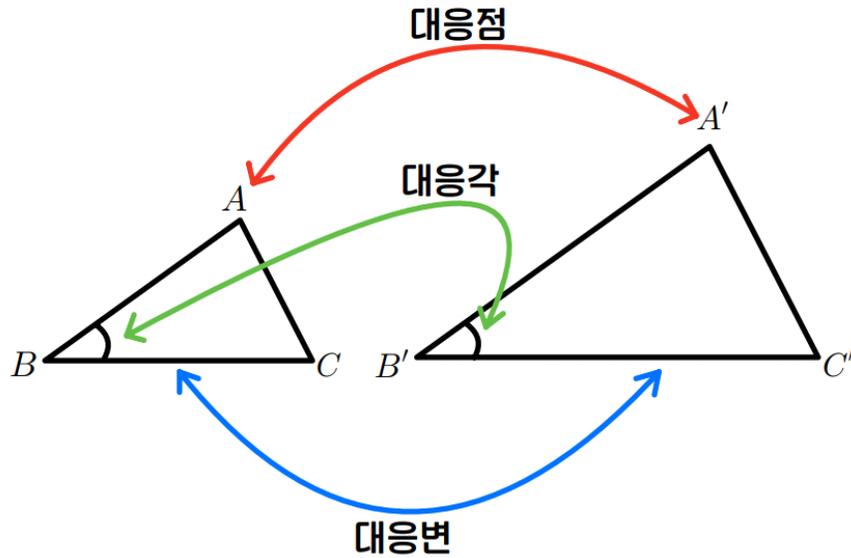
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, 합동이 되면 닮음이에요.



두 삼각형  $\triangle ABC$  와  $\triangle A'B'C'$  는 서로 닮음이에요.

$\triangle ABC$ 를 확대하면  $\triangle A'B'C'$ 가 되니까요.

두 삼각형의 닮음을 수학 기호로  $\triangle ABC \sim \triangle A'B'C'$  라고 씁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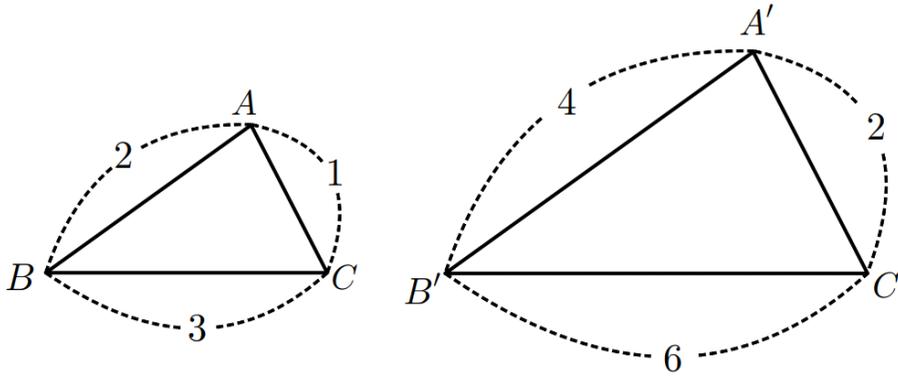
닮음에도 대응점과 대응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합동이랑 비슷하죠?

닮음 기호를 쓸 때는 꼭 대응점 순서대로 적어야 해요.

$\triangle ABC \sim \triangle A'B'C'$  라고 적었다면,  $A$ 는  $A'$ 에,  $B$ 는  $B'$ 에 대응하는 대응점이 돼요.

대응변도 마찬가지입니다.  $\overline{AB}$ 와  $\overline{A'B'}$ ,  $\overline{BC}$ 와  $\overline{B'C'}$ 이 대응변이 됩니다.

닮음인 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.



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, 닮음이란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거예요.

일정한 비율이라는 말 때문에, 닮음인 두 도형 사이에는 닮음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

$\overline{AB}$ 와  $\overline{A'B'}$ 을 보면 길이가 딱 2배 차이 나죠?

닮음인 도형에서, 모든 변의 닮음비는 같아요. 따라서 나머지 변의 길이도 2배 차이나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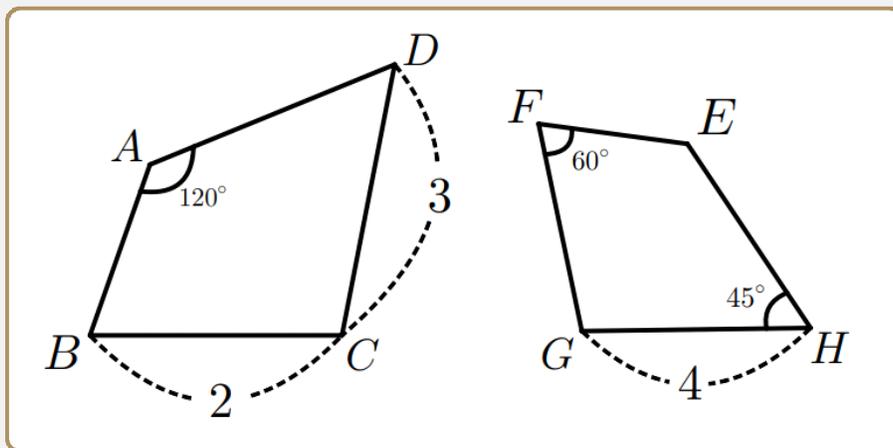
이런 도형을 닮음비가 1 : 2이라고 표현합니다. 따라서  $\overline{B'C'}$ 의 길이는 6이 되고,  $\overline{A'C'}$ 는 2가 됩니다.

## 개념요약

- 어떤 도형을 줌인, 줌아웃시켜서 다른 도형과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,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부른다.
- 닮음비: 닮은 두 도형 사이의 길이 비율
- 닮음인 도형에서 모든 변의 닮음비가 같다.
- 닮음인 도형에서 모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.



## 생각해보기



위의 두 사각형은  $\square ABCD \sim \square EFGH$  이예요.

작성된 순서를 잘 따라가 보면,  $\overline{CD}$  에 대응하는 변은  $\overline{GH}$  이니까,  
 닮음비는 6 : 4, 즉 3 : 2가 됩니다.

만약 대응변을 헷갈리면 어떻게 될까요?

$\overline{BC}$ 와  $\overline{GH}$ 를 대응변으로 보게 되면, 닮음비가 1 : 2 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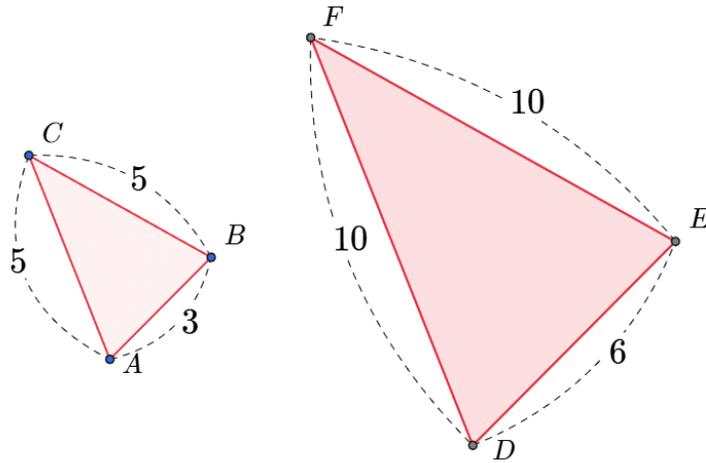
닮음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의 순서는 대응점과 대응변 순서대로 적어야 해요.

비슷해 보인다고 순서를 무시하면 아예 다른 결과가 나와요.

따라서, 닮은 도형은 꼭 대응점 순서대로 적어야 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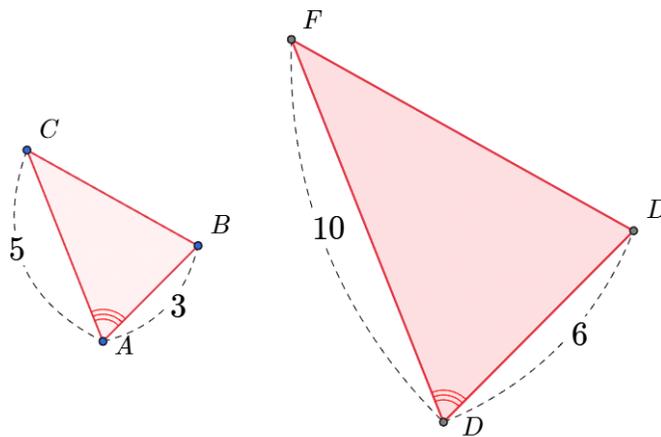
삼각형의 닮음조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 
하나씩 살펴볼까요?



세 대응변의 길이비가 모두 같다면, SSS 닮음이라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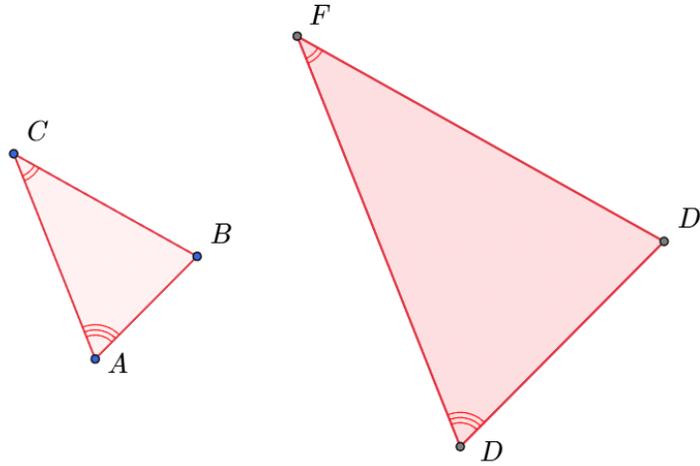
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을 비교해 볼게요.

오른쪽 삼각형에서 모든 변이 2배 길어졌죠? 따라서 이 경우 닮음비는 1 : 2이에요.



두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고, 끼인각이 같다면,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.

마찬가지로 닮음비는 1 : 2가 됩니다.



2개의 대응각이 같다면 AA 닮음이라고 합니다.  
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자주 활용하게 될 닮음조건이에요.

### 개념요약

- 1) SSS 닮음 : 세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다면, 닮음이다.
- 2) SAS 닮음 : 두 대응변의 길이비와 끼인각이 같다면, 닮음이다.
- 3) AA 닮음 : 두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면, 닮음이다.



### 생각해보기

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 $180^\circ$  이예요.  
2개의 각이 서로 같다면, 나머지 각도 같을 수 밖에 없겠죠?  
그래서 AAA가 아니라 AA 닮음이라고 씁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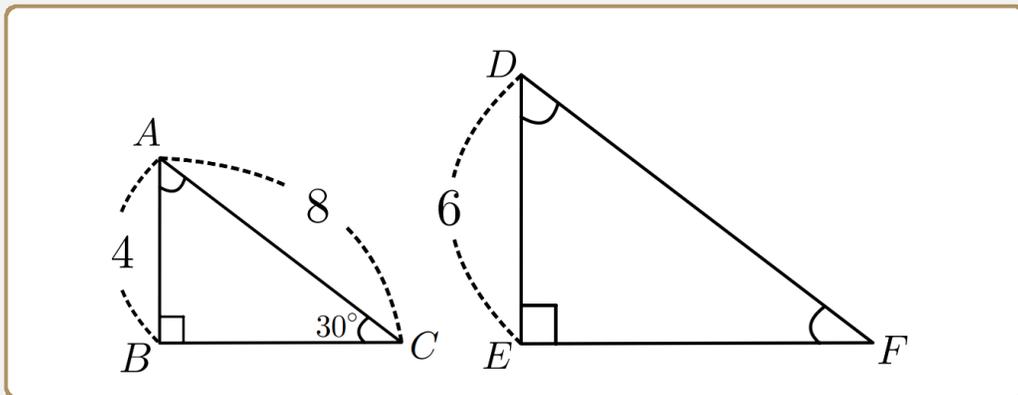


답은 도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답음비입니다.

이 답음비를 이용하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. 이를 활용해서 예제 몇 가지를 풀어 봅시다.

★ EXAMPLE

$\triangle ABC$  와  $\triangle DEF$  는 서로 닮은 관계이다.  $\overline{DF}$  와  $\angle F$  의 크기를 구하시오.



문제에서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주어졌네요.

두 삼각형의 답음비를 구해 봅시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응변은  $\overline{AB}$  와  $\overline{DE}$  가 있습니다.

$\overline{AB}$  와  $\overline{DE}$  의 길이비는 2 : 3이므로, 두 도형의 답음비도 2 : 3입니다.

$\overline{AC}$  와  $\overline{DF}$  의 길이비도 2 : 3이겠네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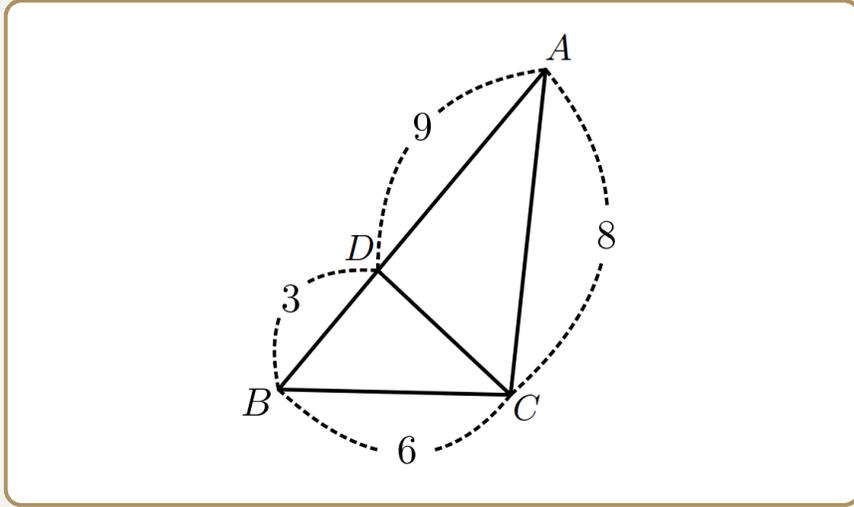
$2 : 3 = \overline{AC} : \overline{DF}$ , 이 비례식을 풀면  $\overline{DF} = 12$ 가 됩니다.

$\angle F$  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?

답은 도형은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자주 쓸 성질이에요.

그래서  $\angle F$  는  $\angle C$ 와 크기가 같아요. 그럼  $30^\circ$ 가 답이겠네요.

$\triangle ABC$ 와 닮은 삼각형을 구하시오.



이렇게 여러 삼각형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, 공통인 각을 보면 닮음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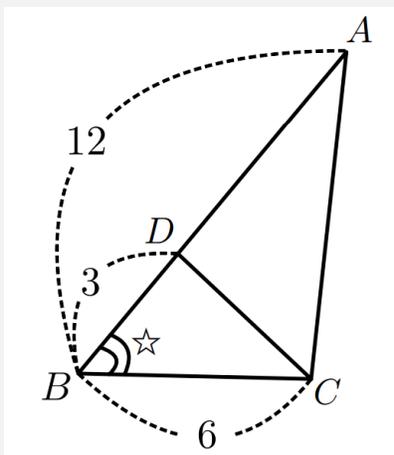
$\angle A$ 는  $\triangle ABC$ 와  $\triangle ADC$ 가 공통으로 쓰고 있네요.

마찬가지로  $\angle B$ 는  $\triangle ABC$ 와  $\triangle CBD$ 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.

$\triangle CBD$ 를 볼까요?  $\overline{CB} = 6$ ,  $\overline{BD} = 3$ 이죠.

다음으로  $\triangle ABC$ 를 본다면,  $\overline{AB} = 12$ ,  $\overline{CB} = 6$ 이 되겠네요.

비율이 같은 거 보이시나요?  $\overline{AB} : \overline{CB} = 2 : 1$ 이고,  $\overline{CB} : \overline{DB} = 2 : 1$ 이네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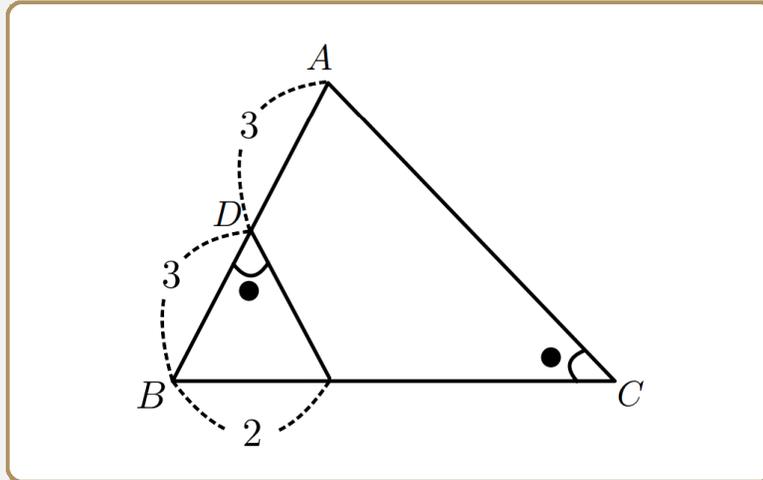


두 변의 길이비가 같고 끼인 각이 같으니 SAS 닮음이죠?

따라서  $\triangle ABC \sim \triangle CBD$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

이때 대응점 순서대로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합시다!

$\triangle ABC$  와 닮은 삼각형을 구하시오. (단,  $\angle ACB = \angle BDE$ 이다.)



마찬가지로 여러 삼각형이 겹쳐 있는 경우, 닮음의 힌트를 찾기 위해 공통인 각을 살펴봅시다.  
 $\triangle BDE$  와  $\triangle ACB$ 에서,  $\angle B$  는 공통이죠?

문제에서  $\angle ACB$  와  $\angle BDE$  은 크기가 같다네요.  
 같은 각 2개가 나왔으니 AA 닮음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  
 따라서  $\triangle ABC \sim \triangle BED$ 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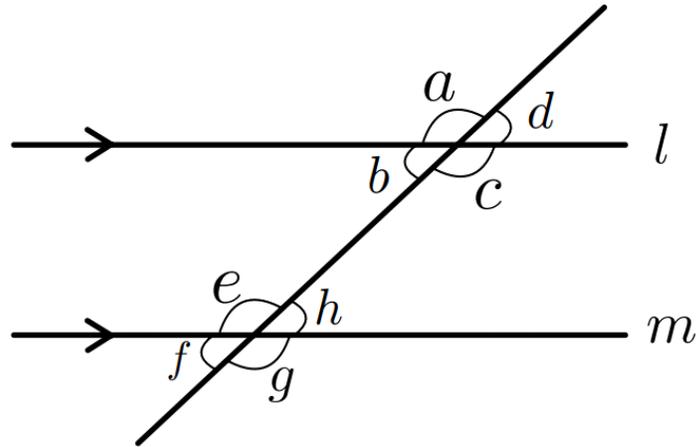
☾ APOLO TIPS

크기가 같은 각 2개만 찾으면 AA 닮음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,  
 다른 두 닮음조건보다 AA 닮음이 자주 나와요.  
 SSS, SAS 닮음은 길이비를 따져야 해서 복잡하거든요.



삼각형의 두 각이 같으면 AA 답음 상황이 만들어져요.

크기가 같은 각 2개만 찾으면 답음이 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성질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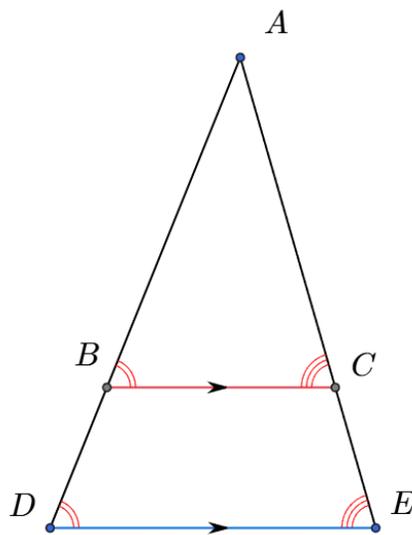


앞서 배운 평행선의 성질 기억하시나요?

우선 맞꼭지각은 항상 같고요, 평행선에서는 동위각과 엇각의 크기도 같습니다.

그래서 같은 각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.

이를 이용해서 AA 답음 삼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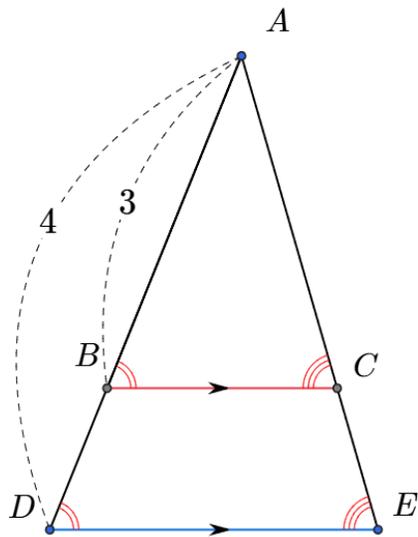
$\triangle ABC$  와  $\triangle ADE$  를 봅시다.  $\overline{BC}$  와  $\overline{DE}$  는 평행이에요.

$\angle B$  와  $\angle D$  는 동위각으로 같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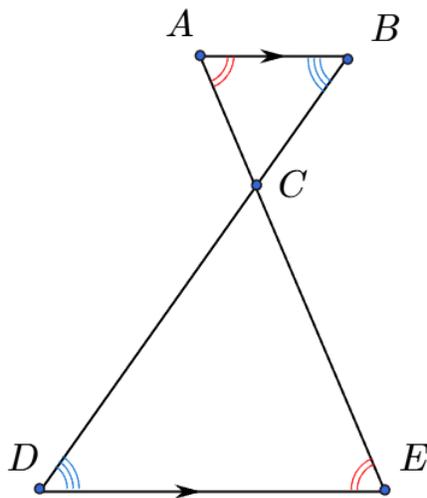
마찬가지로  $\angle C$  랑  $\angle E$  도 동위각이라서 같습니다.

크기가 같은 각 2개가 나왔으니, AA 답음을 찾을 수 있겠죠?

대응점을 고려하면  $\triangle ABC \sim \triangle ADE$ 라고 할 수 있겠네요.



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, 문제에서 이렇게 길이를 줬다면,  
 $\triangle ABC$  와  $\triangle ADE$  의 **답음비**가 3 : 4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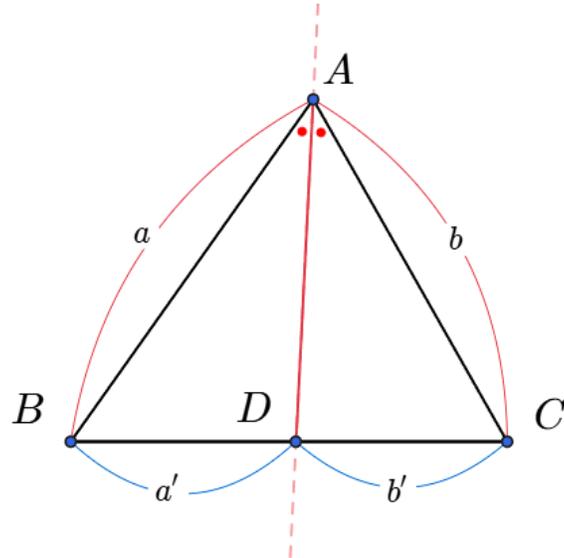


동위각을 썼으니, 이제는 **엇각** 차례입니다.  
 $\angle A$ 와  $\angle E$ 는 **엇각**이라서 크기가 같습니다.  
 $\angle B$ 와  $\angle D$ 도 크기가 같겠네요.  
 크기가 같은 각 2개가 나왔으니 **AA** 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.  
 대응점 순서를 생각하면  $\triangle CAB \sim \triangle CED$ 라고 쓸 수 있겠네요.



답음을 활용한 삼각형의 공식을 배워 볼게요.

각의 이등분선과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면 이 공식을 활용하기 좋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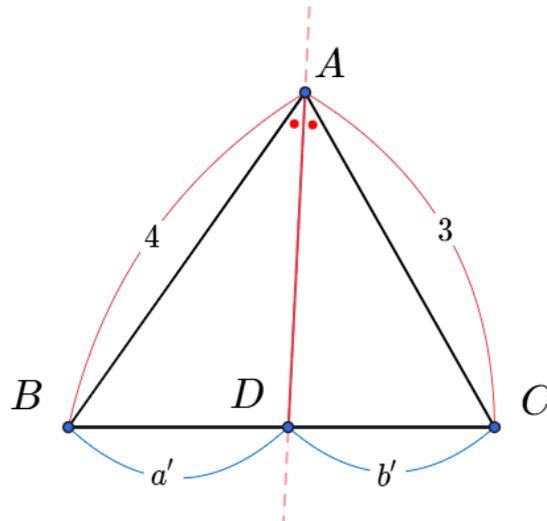


먼저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.

$\triangle ABC$  를 볼게요. 삼각형의  $\angle A$ 의 이등분선이 점선으로 나와 있네요.

이 이등분선이  $\overline{BC}$  와 만나는 점을  $D$  라고 할게요.

이때,  $a : b = a' : b'$  가 성립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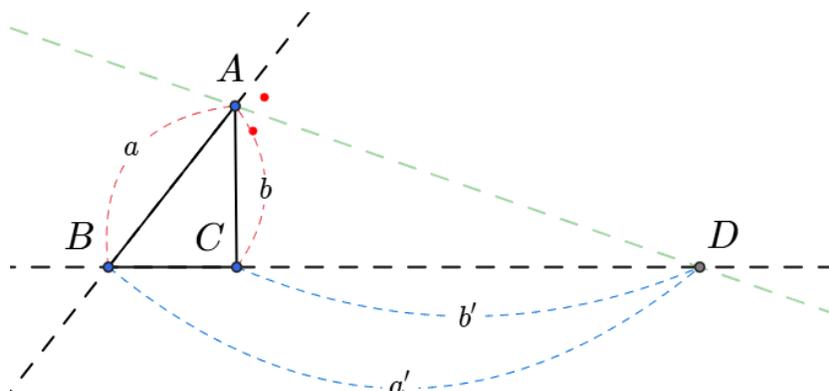


예를 들어, 만약  $a = 4$ 이고,  $b = 3$ 이라면,

$a' : b' = 4 : 3$  이 되겠네요.

생각보다 자주 쓰는 공식입니다. 많은 학생이 이 공식을 까먹더라고요.

‘어,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네. 이 공식 쓸 수 있나?’라는 생각을 떠올려보세요.



이번에는 외각의 이등분선을 살펴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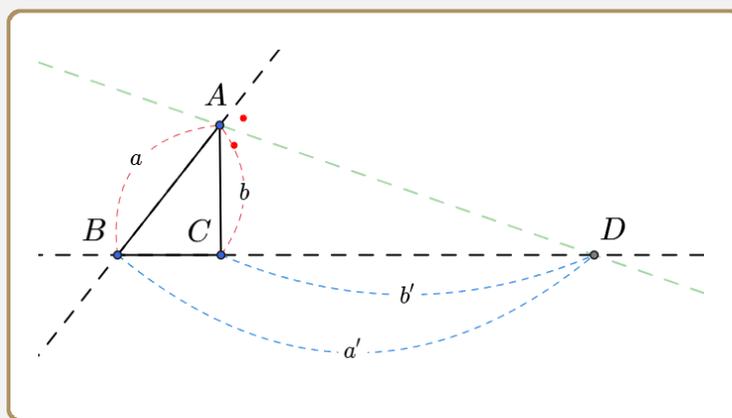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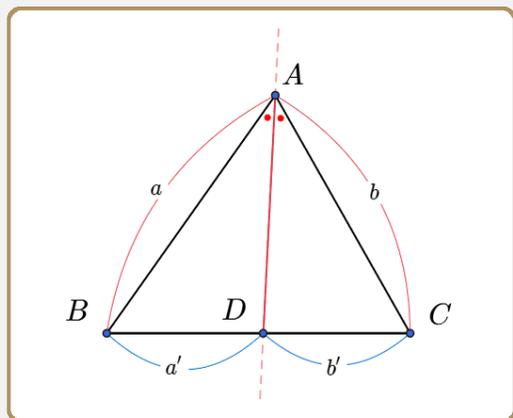
$\triangle ABD$  에서  $\angle A$ 의 외각을 볼게요.  $\angle A$ 의 외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 봅시다.

점선이  $\overline{BC}$ 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 $D$ 라고 한다면,  $a : b = a' : b'$ 이예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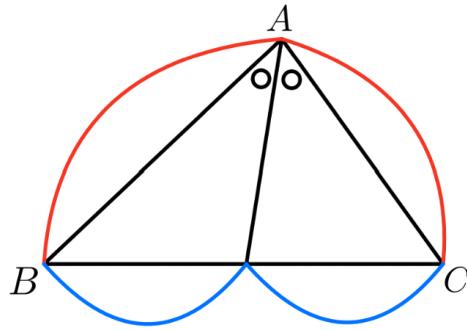
내각 이등분선의 공식보다는 덜 자주 나오는데, 그래도 종종 나오니 기억합시다.

‘외각의 이등분선? 이 공식 쓸 수 있나?’라는 생각을 가져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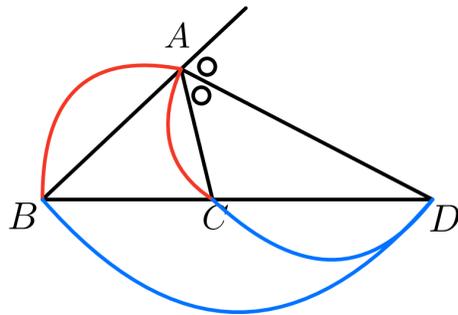
### 개념요약



삼각형 내각이나 외각의 이등분선에서,  $a : b = a' : b'$ 가 성립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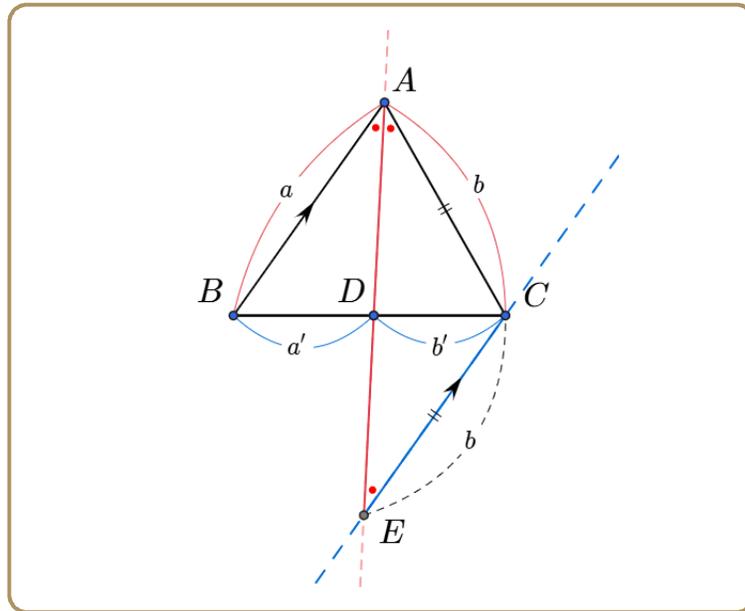


저는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을 **하트 공식**이라고 부릅니다.  
 볼록볼록 튀어나온 녀석들이 뒤집힌 하트처럼 생겨서요.  
 어떤 학생은 짱구 엉덩이 공식이라고 하더라고요.



외각의 이등분선 공식은 **나이키 공식**이라고 부릅니다.  
 볼록볼록 그려 보면 나이키 로고처럼 생겨서요.

그름달 공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.  
 마음에 드는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.



$\overline{AB}$  와 평행이고 점  $C$  를 지나는 직선을 그립니다.

이 점선과,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. 이 점을  $E$  라고 부를게요.

$\angle BAD$  와  $\angle CAD$  는 같습니다. 각이 이등분됐으니까요.

그리고  $\angle BAD$  와  $\angle DEC$  는 엇각으로 같습니다.

따라서,  $\triangle ACE$  는 이등변삼각형이고,  $\overline{AC}$  와  $\overline{EC}$  의 길이는  $b$  로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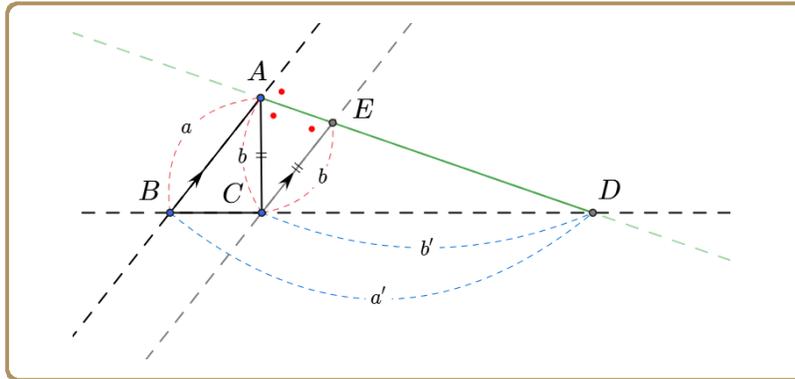
선분  $\overline{AB}$  와  $\overline{CE}$  가 평행이기 때문에,

엇각의 성질에 의하여,  $\triangle ABD$  와  $\triangle ECB$  는 AA 닮음입니다.

닮음비를 활용하면  $a : b = a' : b'$  가 됩니다.



PROO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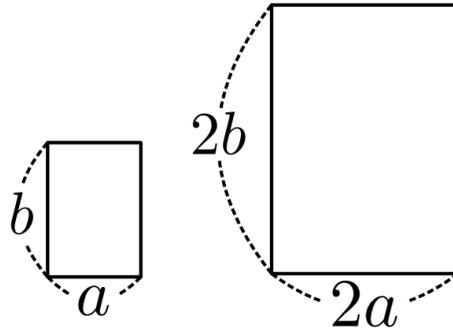


$\overline{AB}$  에 평행이고 점  $C$  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 봅시다. (그림에서는 회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.)  
이 직선이  $\overline{AD}$  와 만나는 점을  $E$  라고 할게요.

엇각의 성질을 사용하면 빨간 점으로 표시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.  
그래서  $\triangle ACE$  는 이등변삼각형이고,  $\overline{AC}$  와  $\overline{EC}$  의 길이는  $b$  로 같습니다.

또한,  $\overline{AB}$  와  $\overline{EC}$  가 평행이므로,  
 $\angle B$  와  $\angle ECD$  의 크기는 같고,  $\angle D$  는 공통입니다.

따라서,  $\triangle ABD$  와  $\triangle ECD$  는 AA 닮음입니다.  
닮음비를 활용하면  $a : b = a' : b'$  가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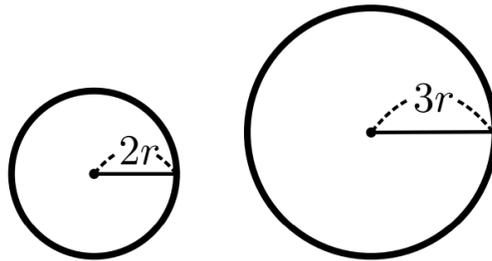


**답음비** 1 : 2

**넓이비**  $ab : 4ab = 1 : 4$

답음비가 1 : 2인 직사각형 두 개를 볼게요.

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각각  $ab$ ,  $4ab$ 입니다.



**답음비** 2 : 3

**넓이비**  $4\pi : 9\pi = 4 : 9$

이번엔 답음비가 2 : 3인 두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(아직 원의 넓이를 안 배웠다면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).

두 원의 넓이를 구하면  $4r^2$ ,  $9r^2$  이에요.

눈치채셨나요?

어떤 두 도형의 답음비가  $m : n$  이라면, 두 도형의 넓이비는 제곱인  $m^2 : n^2$  이 됩니다.

답음비에서 숫자들을 제곱하면 넓이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

## 개념요약

어떤 두 도형의 닮음비가  $m : n$  이라면, 넓이비는  $m^2 : n^2$ 이다!

닮음비  $m : n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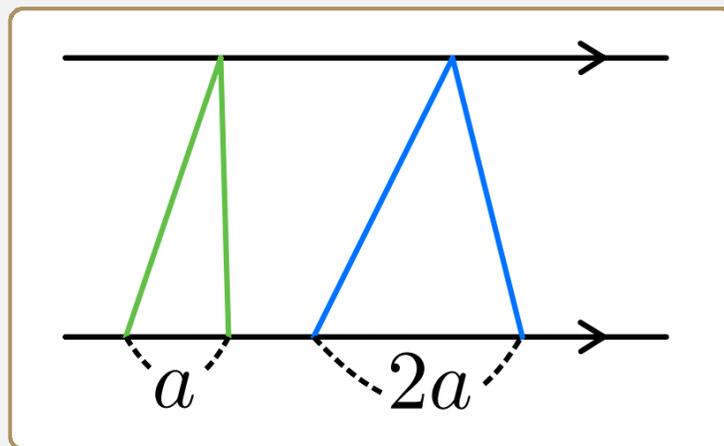
→ 넓이비  $m^2 : n^2$



## 생각해보기

넓이비 하면 떠오르는 녀석이 하나 있죠?

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에서, 밑변 길이비가 1 : 2이면, 넓이비도 1 : 2입니다.



헛갈리기 쉽습니다.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 아닙니다. 밑변이 다르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. '닮은 도형이니까 제공해야지'라는 생각으로, 넓이비를 1 : 4 라고 쓰면 틀립니다.

이 두 녀석은 닮음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.

닮은 도형에서는 길이비가 1 : 2라면 넓이비는 1 : 4지만,

위 상황에서는 길이비가 1 : 2라면 넓이비는 1 : 2입니다.

두 도형이 닮음이 아니라는 점, 헛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.